

컴퓨터 교육 이대로 좋은가!

1967년 최초로 국내 컴퓨터가 도입된 이후 30여년이란 세월속에 이젠 우리손으로 만든 컴퓨터를 수출하는 현실이고 보면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향한 우리의 정보산업은 선진화의 대열로 한걸음 닦아서 있는 것 같아 자부심을 갖게 한다.

그러나 컴퓨터 교육은 과감한 전환이 필요한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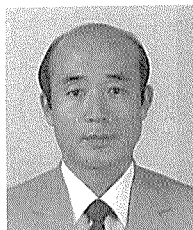
컴퓨터 교육의 20여년이란 경험을 토대로 최소한 다음의 몇 가지라도 실천한다면 정보화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몇가지 제안을 하고저 한다.

첫째, 이젠 컴퓨터 교육도 언어 중심교육에서 이용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즉,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과 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제품을 이용할 줄 아는 이용기술 교육과 분리 교육을 하자는 것이다.

이미 선진국들은 소수 전문요원양성 교육외에는 언어 중심 교육에서 활용 및 이용기술과 관련지식에 비중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전산과에서 인사관리, 회계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현업 종사자의 실무담이나 기존 소프트웨어의 활용기술을 교육실시 하여 졸업후에도 생소하지 않은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로, 기술적인 교육과정의 세분화와 단계적 집중교육의 실현이다. 우리나라는 85년 이후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컴퓨터 과목을 채택, 부족한 장비와 강사 부족 현상속에서도



鄭淸兪

(주)청운정보시스템 대표

PC 보급확산에 따른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그 교과 과정을 보면 BASIC 언어 숙달에 치중하고 있다. 마치 컴퓨터 교육=BASIC으로 착각할 정도이며 또한 사회 교육기관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학교때 부터 키-보드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컴퓨터에 전문지식이 없이도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이용할 수 있는 Tool등을 교육시켜, 컴퓨터의 편리성을 인식시키는 교육에 치중한다면 교육의 효과는 클 것으로 생각한다.

그 이후 전문지식 교육이나 언어 교육은 자기 수업을 위해 정규대학에서나 전문사회 교육기관에서 해결하는 단계적 교육제도가 필요하다.

셋째는 공통된 교재 개발이다.

이젠 장비는 어느 곳에서나 유사한 기종들을 갖추고 있으나, 강사나 교육기관에 따라 교육이 일괄적이지 못하고 각양각색이다.

마지막으로 교과과정중 산학의 공백을 줄이는 전문 실무 교육과정 연구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